

불자 세상보기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 에너지학과교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가 미국 남동부해안을 강타했을 때 미국에 1년 반 동안 체류한 적이 있다. 그때 많은 미국사람들이 '21세기 미국에서 과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자성과 비판이 있었다.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태풍 메아리가 스치거나 흔적들을 보면서 '21세기 한국에서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게 된다.

장마철이 되면 무엇보다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대책에 대한 점검과 대비가 있어야 한다. 하천, 제방, 골짜기 등 현상주변 장마철 취약 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에 총심해야 한다. 특히 저지대 등 삼습침수지역이나 급경사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전점검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이 필수적이다. 산중에 위치한 많은 사찰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지형성 경우가 집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험여부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태풍, 지진,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에 대한 인간의 대응은 부족한 실정이다.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지혜만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여러 가지로 장마와 태풍피해에 대한 걱정이 많다. 전국 주요 하천이 공사 중이다 보니 적은 양의 비에도 온통 흙탕물로 범벅이고, 웬만한 큰비가 아니면 공사 중단 없이 연일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장마철이 되면 일반 공사들도 안전문제로 기본적인 보강공사 후, 잠시 중단하거나 장마철이 지난 후 공사를 재개한다. 그렇지만, 올해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4대강사업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구제역사태로 인한 매몰지 문제로 큰비가 올 때마다 전국이 비상상황이다.

잘 알다시피 4대강사업은 겉으로는 녹색성장과 강 살리기를 이야기하지만, 총일

한 사전점검도 없이 속도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개발 사업이며 파괴사업이다. 단군 이래 최대사업이라고 말하면서도 많은 절차들이 무시된 상태로 무모하게 추진됐다. 이는 민주주의 붕괴이며, 사전에 충분한 과학적 검토 없이 진행된 언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그런 상황에서 과대한 준설로 결국 왜관철교가 붕괴됐고, 제방이 무너지고, 지류들의 침식이 일어나는 등 여러 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원인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설계와 급속도의 시공 작업이지만, 아직까지도 사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점검 후 공사를 재개한다는 소식은 감감한 실정이다. 정부는 공사만 끝나면 된다는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또 하나는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및 유실문제이다. 애초부터 급작스레 동물들의 사체를 매몰시켰기에 제대로 된 매몰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비에 씻겨 유실되거나, 고인 침출수들이 일시에 빗물에 씻겨 유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애초부터 충분한 대책 없이 미봉책으로 추진되다보니 총

분히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드러난 매몰지만 처리하겠다는 것이, 수천 곳의 매몰지에 대해서는 문제만 안생기면 된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고들이 일어날 것 같기에 많은 우려가 든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적어도 21세기 과학의 시대라 하면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이 점에서 4대강사업과 구제역사태는 경제적 가치와 인간위주의 편리만을 생각하는 우리 시대 또 다른 인재(人災)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반생명적 가치로 전도된 세상을 다시금 일깨우는 생명평화를 위한 큰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부터라도 4대강사업과 구제역사태를 통해 우리시대 반생명적 문화를 지양하고, 온전한 생명체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21세기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세상은 생명평화의 사회가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공존하는 생명평화의 시대가 되기를 고대하게 된다.

社說

불교문화콘텐츠 방향설정부터

조계종이 추진 중인 민족문화수호운동이 바르게 진행되려면 단순히 빛바래거나 이기긴 문화재가 망실되지 않게 지키는 소극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불교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양시키는 차원에 그쳐서도 안된다.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은 필수이다.

이런 가운데, 6월 30일 불교문화콘텐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불교문화콘텐츠의 방향설정과 불교문화콘텐츠진흥센터 설립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발표자의 의견처럼 불교문화콘텐츠의 방향설정은 중요하다. 불교문화콘텐츠를 통해 수익사업을 할지, 문화교류를 펼칠지, 문화공공재로서의 역할

을 높일 것인지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면 효율적인 계획이 나올 수 없다. 반듯한 결과물도 나올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불교문화 콘텐츠에 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 조계종에서 불교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기관은 총무원 문화부와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이다. 두 기관이 교차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불교문화콘텐츠가 주무가 아니라보니 서로 미루다 이도저도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불교문화 콘텐츠 업무를 전담할 기관의 불교문화콘텐츠진흥센터는 설립돼야 한다. 그래야 불교문화 콘텐츠 관련 인재도 모일 수 있다. 조계종의 민족문화수호운동의 활로는 불교문화 콘텐츠에 달려있다.

반대 전문가부터 설득시켜라

한국생태학회 등이 6월 29일 개최한 국립공원정책포럼에서는 "자연공원법 개정은 불교계에 대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불교적인 황형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조차도 "불교계에 대한 특혜이고, 특정 종파를 위한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도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이 진행 중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사찰을 옥죄던 관련 법령의 개정은 45년간 해묵은 불교계의 염원이었다. 간절한 염원이 이뤄질 찰나, 거북한 소리가 들려온다.

전문가들의 지적은 입장료 징수 등 관리주체가 불교계에 한정됐다는 점과 불교 신행을 위한 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찰

보수를 불사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불만도 있었다.

불교계로서는 이들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지적을 귀담아 듣지 못한다면 자성과 쇄신은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자연공원법이 개정을 앞둔 것은 분명 불교계의 경사이다.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치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와 조계종간의 밀월관계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문가들이 이렇듯 지적, 대다수 국민의 시각은 살피지 않아도 뻔하다. 불교계는 45년 해묵은 염원의 해소에 도취돼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된다.

반대하는 전문가부터 설득시켜라 자연공원법 개정이 온전해진다.

사부대중 갈림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본래 메아리는 자취가 없었지만 많은 흔적을 남긴 태풍 메아리의 뒷모습을 보며 태풍에 대해 생각해본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태풍(颱風)의 어원은, 1634년에 편집된 <북건통지(福建通志)> 56권 <토풍지(土風志)>에 '태(颱)라는 글자가 중국에서 처음 사용된 예이며, 영어의 typhoon이란 용어는 1588년에 영국에서 사용한 예가 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1504년 typhon이라 했다. 이밖에도 아랍어에서 방글방글 도는 것을 의미하는 tūfān이 타이프로 전화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1946년까지는 난양[南陽]이나 남중국해상 등에서 발생해 필리핀·중국·한국·일본 등으로 올라오는 맹렬한 폭풍우라고 정의했을 뿐 확실한 기준은 없었다고 한다.

그 후 세계기상기구(WMO)는 최대풍속에 따라 4계급으로 분류하며, 열대성폭풍부터 태풍의 이름을 붙이는데, 한국과 일

내게 태풍이 분 적이 있던가?

본은 열대성폭풍 이상을 태풍이라고 한다. 주로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동부로 불어온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한반도에는, 나에게 어떤 태풍이 있었을까?

내 20대까지의 기억 창고에는 태풍이라는 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기억창고를 여기저기 뒤져보고 검색 해봐도, 내 유년과 소년과 청년기를 훑고 지나간 태풍의 흔적이 겨우 몇 개, 시위어 가는 불빛에 비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떠오를 뿐이다. 그 정도다. 그게 전부인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라고 왜 태풍이 없었는가. 그 때도 큰 태풍이 몰아닥치고 큰 사건들이 많았을 터였다. 그러나 태풍에 대해 서 별다른 기억이 없는 것은 내 자신이 직접적이고, 커다란 피해를 입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또한 통칭 제 몇 호 태풍 등으로 불리거나 이름도 생소하고 뜻도 알지 못하던 영어로 명명된 것이어서 그러지 않았나 여겨진다.

태풍의 이름, 명칭부터가 나와 동떨어진 것이었고 또한 나의 관심 밖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30대 이후의 내 기억창고에서는 영성하기는 하지만 태풍이라는 단어와 데이터, 정보, 콘텐츠가 비교적 쉽게 검색된

다. 시기적으로 보면, 아시아태풍위원회에서 아시아 각국 국민들의 태풍에 대한 관심과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제출한 10개의 이름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다. 우리나라와 북한도 각각 10개씩 된 태풍 이름을 제출했는데, 우리나라가 제안해 선정된 태풍 이름은 개미 제비 나리 너구리 장미 고니 수달 메기 노루 나비 등 10개이고, 북한이 제안한 이름은 기러기 소나무 도라지 버들 갈매기 봉선화 매미 민들레 메아리 날개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우리말로 된 태풍 이름 20개가 작명이 된 셈이다.

2003년 9월 6일 발생한 9월 12일 경부터 제주도 경상남도 울릉도를 관통하며 9월 14일 소멸한 '메미', 2005년 9월 우리나라와 특히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나비', 2006년 제5호 태풍 '개미', 2007년 9월에 상륙한 '나리', 2004년 8월과 2010년 10월의 '메기', 그리고 가까이는 올해 6월 하순에 발생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태풍 중 서해에서 유일하게 북서진한 태풍으로 기록된 '메아리'도 떠오른다.

그리고 그런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얼마나 발생했으며, 또 태풍이 남긴 각종 기록은 무엇인지 등에 대

해 조금씩 검색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뭐가 허전하다. 뭐가 कै를적이다.

아무리 30대 이후 내가 겪고, 만났으며, 알고 있는 태풍의 기억을 덧붙여서 후한 점수를 준다고 해도 "나는 태풍을 만나지 않았다. 아니, 만나지 못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분명 한반도에는 수많은 태풍이 쓸고 지나갔고, 나도 겪었고,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나는 한 번도 태풍을 맞은 적이 없는 것이다.

술한 태풍이 한반도 상공과 지상 위로 경천동지할 위력을 뽐내며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머리 위에서, 내 몸 앞에서 지나간 바람에 불과했던 것이다. 저 깊은 가슴 밑바닥에서 시작되어 내 영혼의 대지에 불어 닦긴 태풍을 맞았던 적이 없는 것이다.

밖에서 돌아와서 나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나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덮어버리고, 나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고, 그리하여 새로운 나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태풍은 아직 내게 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진짜 태풍을 기다려보는 것이다. 시방.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일,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부산지사: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청와대 입지의 재조명.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많은 외침과 역경에서도 나라를 지켜온 민족이라고 자위하기보다는 침략과 고난을 당하지 않을 부국강병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은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地理學的 불리함을 地理的 이로운으로 승화시켜 작지만 강한 나라 초일류국가로 지향하는데 풍수가 기여할 부분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화려함에 감춰진 치명적인 독을 간파하고 있다. 갈등과 논란을 겪는 세종시 입지를 국내외 역사적 도시들과 비교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도 심도 있게 다루어 보았다. 우리의 국토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약속의 땅 희망의 땅이 곳곳에 있다.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전국토의 명혈을 모두 찾아 쓴다 해도 36층 골프장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중학 지음 / 신국판 / 328쪽 / 정가 20,000원. 육임이 보인다, 이게 풍수다, 육요학 핵심비결. 신 사주학 핵심비결, 그림 당사주 대전,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풍수 양택통론.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